

진화하는 시페퍼스, 최강 현대건설 놀래켰다

광주 시페퍼스가 홈팬들에게 작은 희망을 안겨 줬다.

광주 시페퍼스가 지난 28일 광주 서구 페퍼스타 디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2-2023 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전에서 진화하는 경기력을 선보였다.

1-3(20-25, 25-20, 18-25, 21-25)으로 패했으나 지난 시즌 1위 현대건설을 상대로 1세트를 따냈다.

페퍼스는 지난 25일 흥국생명전에서 공격 성공률 23.66%였으나 현대건설전에서는 39.23%로 상승, 경기력이 상승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페퍼스는 2세트에서 최고 경기력을 선보였다.

약점으로 지적됐던 블로킹에서 3득점, 유효블로킹(벨리로 연결한 블로킹) 8개를 기록, 현대 건설의 공격을 틀어막았다. 이날 경기를 통틀어 블로킹에서는 10-8로 현대건설에 앞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으로 성장했음을 엿보게 했다. 이성희·이경수·박민범 페퍼스 코치가 직접 상대팀 블로커로 나서 훈련한 효과라고 김형실 감독은 설명했다.

어포짓 스트라이커(라이트)니아 리드는 2세트에서만 8점을 뽑아내며 공격을 이끄는 등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리드는 이날 26점을 뽑아내 해결사로서 역할을 해냈다. 지난 흥국생명전 3세트를 통틀어 9득점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었다. 리드는 백어택으로도 2점을 뽑아냈다. 그는 로테이션 때문에 후위로 내려가도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빠른 토스로 공격 스피드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세터 이고은과 리드의 조합이 앞으로 경기에

V리그 홈 개막전 1-3 패했지만 한 세트 따내며 홈팬에 희망 안겨 공격 성공률도 39%로 크게 상승

리드 26득점...양팀 통틀어 최다이한비 14점·박경현 9점 활약 다양한 공격 루트 개발 속제로

서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할 경기였다.

김형실 감독은 "리드가 토스의 높낮이에 적응하는 것 같다. 오늘은 맞아 들어가는 플레이가 보였다"고 말했다.

강성형 현대건설 감독도 "리드가 왜 1라운드 1순위로 뽑혔는지 알게 됐다"며 "리시브가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세팅된 볼이 리드에게 전달됐을 때 막아내기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웃사이드 히터(레프트) 이한비와 박경현도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생일을 맞은 이한비는 14득점으로 리드에 이어 팀내 두번째로 많은 득점을 뽑아냈다. 김 감독이 최고의 플레이어로 엄지 손가락을 짚을 정도였다. 박경현도 9점을 뽑아내면서 공격력을 높이는데 가세했다.

김형실 감독은 "이한비와 박경현에게 볼이 갔을 때 상대팀 블로킹이 높기 때문에 성공률이 낮아진

다. 블로킹을 피하는 이동공격 등 다양한 공격 루트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강성형 감독은 레프트의 활약을 칭찬했다. 그는 "지난해보다 아웃사이드 히터가 좋아졌다. 프로 2년차에 접어들면서 경험치를 경기에서 보여준 것 같다"고 말했다.

페퍼스는 현대건설전에서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4세트에서 팀의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냈다. 1세트와 4세트 각각 20, 21점으로 맹렬하게 추격했으나 세트 포인트까지는 가지 못했다.

4세트 17-17로 맞선 상황에서 현대건설 양효진에게 2번 연속 오픈을 허용해 발목을 잡혔다. 21-24로 뒤진 상황에서 박경현의 서브 범실로 세트를 내주고 경기를 마무리했다.

현대건설은 에이스 야스민과 양효진이 각각 22점, 21점을 뽑아내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들은 박빙 승부가 펼쳐질 때마다 결정적인 득점으로 페퍼의 상승세를 꺾었다. 현대건설 센터 양효진은 페퍼의 빈공간을 공략하는 페인트 공격으로 페퍼스의 추격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들과 이다현(15점) 트리플타워가 무려 58점을 합작하는 파괴력을 선보였다.

김형실 감독은 변화한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팀이 위기관리 능력에서 더 발전해야 한다. 좀 더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개발해야 한다"면서 "부상의 아픔을 참고 뛰어준 선수들의 후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지난 28일 광주 서구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광주시페퍼스와 현대건설 경기에서 페퍼스 니아 리드(오른쪽)가 스파이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탐솔라 여자검도 전국대회 단체전 우승

봉림기대회 전지윤 개인전 3위
북구청 단체·개인전 3위 선전

탐솔라 여자검도팀이 경남 고성군에서 열린 전국 대회 정상에 올랐다.

탐솔라는 지난 27일 폐막한 2022년봉림기 전국 실업검도대회 단체전에서 화성시정B를 꺾고 1위를 차지했다.

결승에서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으나 포인트 차에서 앞서 우승했다. 박다영·허운영·전지윤·정서현이 우승 주역이다.

탐솔라는 8강전에서 화성시정A를 2-0, 4강전에서 김해시체육회를 1-0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다. 전지윤은 여자부 개인전에서 3위에 올랐다.

탐솔라 오길현 감독은 최우수 감독상을 받았다.

광주 북구청 검도팀도 이번 대회에서 선전했다. 조경철이 통합개인전에서 3위를 차지했고, 단체전에서도 3위에 올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2022년 봉림기 전국실업검도대회에서 우승한 탐솔라 여자검도팀. <광주시 검도회 제공>

전남 생활체육대축전 성황리 막 내려

영광군·영암군 우수상

제34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이 해남군 일원에서 3일간의 열전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이번 체전에는 22개 시군 6400여명이 지역의 명예를 걸고 출전했다.

이번 체전은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정상 개최

돼 전남스포츠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8일 개최식 입장식에서는 '진월 전여잡이소리' 보존회를 주축으로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인 광양시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영광군과 영암군이 우수상, 해남군, 구례군, 신안군이 장려상, 진도군이 스포츠7330상을 각각 수상했다.

회합상은 순천시, 질서상은 고흥군, 응원상은

여주시, 감투상은 강진군, 우수종목단체상은 전남 배구협회가 차지했다.

종목별 경기에서는 광양시가 볼링, 수영, 씨름, 육상, 족구 등 5개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순천시는 검도, 배구, 배드민턴, 소프트테니스 4개 종목에서 정상에 올랐다.

해남군은 그라운드골프, 농구, 축구, 태권도에서 우승했다.

줄다리기는 나주시, 바둑은 여주시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제34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은 '대한민국 생애 수도' 순천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제주 여왕'은 '완도의 딸' 이소미

KLPGA SK네트웍스 우승...통산 4승 중 2승이 제주대회

완도 출신 이소미(23)가 '약속의 땅' 제주도에

서 시즌 첫 우승이자 통산 네 번째 정상에 올랐다. 이소미는 30일 제주도 서귀포시 핀크스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SK네트웍스-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총상금 8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8언더파 270타로 우승했다.

지난해 8월 대우위니아·MBN 여자오픈 제패 이후 약 1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보낸 이소미는 이번 시즌 내내 이어진 우승 갈증을 씻었다.

이소미는 이 대회에 앞서 9번이나 톱10에 진입하는 등 우승 기회가 적지 않았지만, 정작 우승 문턱을 넘지 못해 애를 태웠다.

이번 우승으로 이소미는 바람과 싸워야 하는 제주도에서 2승째를 거뒀다.

작년 롯데 렌터카 여자오픈 우승에 이어 통산 4승 가운데 절반이 제주도에서 나왔다.

이소미는 작년에 제주에서 치른 4차례 대회에서 우승, 3위, 4위 등 3번이나 최상위권에 올랐다.

올해도 롯데 렌터카 여자오픈 준우승과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8위 등 제주도에서 두 번 모두 10위 이내에 이름을 올렸다.

제주는 아니지만 2020년 첫 우승을 따낸 휴엔케이 여자오픈도 바닷바람이 강한 전남 영암의 사우스링스 영암에서 열렸다.

주니어 시절부터 제주도에서 훈련해온 이소미는 KLPGA투어에서 낮은 탄도의 아이언샷을 가장 잘 구사하는 선수로 꼽힌다.

우승 상금 1억4400만원을 받은 이소미는 상금 랭킹 11위(5억8450만원)로 올라섰고, 2020년부터 3년 연속 우승을 신고했다.

이날 이소미는 2019년 최혜진(23)이 세운 대회 최솨타 우승 기록 15언더파 273타를 3타 넘어선 새 기록을 세워 기쁨이 더했다.

박현경은 4라운드에서 1언더파 71타를 쳤다.



이소미가 30일 제주에서 열린 'SK네트웍스-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 파이널라운드 우승 후 트로피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격하던 경쟁자들이 경기 후반에 졸음이 무너져 이소미는 압박감 없이 우승까지 내달릴 수 있었다.

박현경은 15번 홀(파4) 보기로 추격할 동력을 잃었다.

한때 선두로 나섰던 이정은은 후반 9개 홀에서 버디 없이 3타를 잃어 공동 6위(11언더파 277타)로 내려앉았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리멤버
- 2관 블랙 아담
- 3관 자백,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막시역, 공조2: 인터내셔널
- 4관 자백
- 5관 리멤버, 아인보: 아마존의 전설
- 6관 자백
- 9관 인생은 아름다워, 스마일
- 7관 씨네카를 블랙 아담, 오픈: 천사의 탄생, 스마일, 정직한 후보2
- 8관 씨네카를 리멤버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_포시즌 실내악시리즈 ⑥
뷔에르 앙상블
일시: 2022. 11. 21.(월) 19:30
장소: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062-613-8235

GAC기획_포시즌 실내악시리즈 ⑧
몰토 콰르텟
일시: 2022. 11. 7.(월) 19:30
장소: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062-613-8235